

[보도자료] 쿠팡, 집중호우 피해 거제 이재민에 ‘희망박스’ 200세트 긴급 지원

2026. 8. 20.



19일 경남 거제 옥포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긴급구호 쿠팡희망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 기록적 폭우로 대피한 이재민 위해 침구·생활 필수품 담은 긴급구호 물품 전달
- 현장 피해·수요 파악 후 신속 지원 지난달 의성 수해 이어 재난 긴급구호 체계 가동

2026. 08. 20. 서울 - 쿠팡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지역 이재민을 위해 긴급구호에 나섰다.

쿠팡은 지난 19일 경남 거제시에 '긴급구호 쿠팡희망박스' 200세트를 긴급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거제와 통영 등 곳곳에서 산사태와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6시 기준 피해 지역에서 1048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478명이 민간 숙박시설과 학교, 사회복지관, 마을회관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쿠팡은 학교와 사회복지관, 마을회관, 공공시설 등 임시거주시설에 대피한 200여명에게 희망박스를 전달했다.



19일 경남 거제 옥포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긴급구호 쿠팡희망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쿠팡은 집중호우 직후부터 재난구호 전문단체 피스원즈코리아와 함께 피해 현장과 이재민 지원 수요를 파악했다. 현장 점검 결과 대피 주민이 지속적으로 늘고 침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희망박스 200세트 지원을 결정하고, 세종 풀필먼트센터에 비축 중인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출고했다.

희망박스는 이날 거제 옥포초등학교에 도착해 임시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전달됐다. 희망박스는 리빙박스, 차렵이불, 베개, 수건, 양말, 압축 물티슈, 치약·칫솔, 비누·거품망 세면 파우치, 접이식 3단 매트리스 등 총 10종의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피와 운송 부담으로 일반적인 긴급구호 과정에서 지원이 쉽지 않은 매트리스와 침구류까지 포함해 이재민의 위생·보온·수면 등 임시거주 생활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경남 거제 지역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실은 쿠팡 차량 모습

이번 지원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에 희망박스 100세트를 긴급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 수해 현장 지원이다. 당시 쿠팡은 대피소가 마련된 의성종합체육관에 구호물품을 전달해 갑작스러운 수해로 대피한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했다.

쿠팡 사회공헌실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현장의 상황과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쿠팡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구호물품이 필요한 곳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